

『古鏡重磨方』의 간행과 판본

A Bibliographical Study of the Publication and the Editions of *Gogyungjoongmabang*

임 기 영 (Lim, Kee-Young)*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2 판본의 유통 및 활용 |
| 2. 책의 편찬 및 내용 | 4. 전존본 및 판본 비교 |
| 2.1 편찬 경위 | 4.1 전존본의 특징 |
| 2.2 본문의 구성 및 내용 | 4.2 판본 비교 |
| 3. 간본의 유통 및 활용 | 5. 맺음말 |
| 3.1 간행 현황 | <참고문헌> |

<초 록>

이 연구는 퇴계 이황(1501-1570)의 찬술서 『古鏡重磨方』에 대하여 서지적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다. 『古鏡重磨方』은 퇴계의 생전 16세기 후반에 퇴계가 중국의 역대 성현들의 문장을 선집하여 편찬한 작품이다. 이 연구는 퇴계 서지의 판본 조사 영역을 확장하고자 한 시도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그에 따라 판본에 대한 관련 기록 및 사료에 대한 조사, 개별 판본의 특징 및 판본 간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 『古鏡重磨方』은 편찬된 이후 선조 40년(1607) 安東都護府에서 初刊된 판본을 위시하여 조선시대 모두 4차례 간행되었다. 초간본을 제외한 3종의 판본은 모두 板下本을 다시 써서 새겨낸 重刊本이었다. 또한 각 판본의 비교 조사를 통해 본문을 대조한 결과 略字나 俗字 표기는 물론, 脫字와 誤字, 글자 및 구문의 도치 등 다양한 차이 및 변이 양상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초간본 또한 본문이 인용된 原典과 비교할 때 誤字나 글자의 누락이 발견되었으나, 전존본 중에는 가장 오류가 적고, 正本에 가까운 판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要語: 『古鏡重磨方』, 退溪, 李滉, 수양서, 退溪學, 退溪 書誌

*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고서실(impussiant@knu.ac.kr)

접수일: 2013년 12월 5일 최초심사일: 2013년 12월 17일 심사완료일: 2013년 12월 28일

<ABSTRACT>

This study dealt with the book *Gogyungjoongmabang* which have been compiled by Toegye Yi Hwang at the end of the 16th century. *Gogyungjoongmabang* is mainly composed of literary works which have been written by chinese ancient sages. For example, Chu-tzu, Sima Guang, Zhen Dexiu, King Wu, etc are the original author of the works.

So the study was carried out from a part study of Toegye bibliography whose area close in upon 100 kinds of different books.

According to this purpose, we tried to examine related records and historical data of *Gogyungjoongmabang*. Moreover the investigation of bibliographic characteristic and text comparison of each editions doesn't missed as well.

The findings of this study, *Gogyungjoongmabang* was published 4 times in Chosun period including the first edition of Andong area. The three editions except first edition are engraved with newly written original script, that is called 'Joongganbon' in bibliography.

In the text comparison of each editions, we could see various type of misprint, letter of popular form, omitted letter, phrase inversion so forth. But first edition of Andong in 1607 has the least errors of all, and the edition could be regarded as most similar original copy provisionally.

Key words: Toegye, Yi Hwang, *Gogyungjoongmabang*, A book on self-culture, Toegye school, Toegye bibliography

1. 머리말

퇴계 이황이 손수 저술하였거나 편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서적에 대한 윤곽을 언급할 때 서지학 분야에서는 흔히 퇴계 서지라 일컫는다. 이러한 퇴계 서지의 영역에는 『聖學十圖』 등 퇴계 선생이 직접 저술한 작품이나 文集, 詩集을 위시하여 語錄이나 言行錄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그 범주 속에는 퇴계의 독창적 저술 뿐 아니라, 퇴계 선생이 四書類나 朱子書類에 주석을 가한 것 또는 다른 작품의 문장을 선집하거나 인용한 내용을 모아 엮은 편찬서 등 다양한 종류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앞선 연구에 따르면, 이와 같은 퇴계의 편찬 서적은 형태 상 刊本이나 寫本の 여부를 불문하고, 100여종이 넘는 중수가 조사¹⁾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영역에 포함된 판본 중에는 『心經附註』를 비롯하여 『朱子書節要』 등 일부 찬술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의 연장에서 본 연구에서는 퇴계의 중장년 편찬서로 알려진 『古鏡重磨方』에 대하여 서지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古鏡重磨方』은 퇴계의 手稿本 형태로 그의 문하생이었던 月川 趙穆(1524-1606)에 의하여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그 뒤 비슷한 시기 퇴계의 문도이자 安東大都護府使로 재직 중이던 寒岡 鄭述(1543-1620)에 의하여 초간본으로 출판되었고, 얼마 뒤 寧邊都護府에서 중간본이 간행되었으며, 연이어 중앙의 왕실로 유입되어서는 王命으로 교서관에서 재차 간행되는 등 빠른 전파 양상을 보였다. 또한 본문의 분량이 짧고, 퇴계의 選集이라는 이유로 刊本 못지않게 정서된 寫本의 형태로 많이 유통된 특징도 가지고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古鏡重磨方』에 대한 검토 영역은 넓은 의미에서 퇴계 서지를 정리하는 일환으로 퇴계 찬술서의 개별 판본에 대한 조사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세부 관점에서는 퇴계가 편찬한 『古鏡重磨方』이라는

1) 尹炳泰, “퇴계의 저서와 그 간행 - 朱子書節要를 중심으로,” 『퇴계학과 유교문화』(1978. 12), 86-88.

판본에 대하여 책의 편찬 경위 및 판본의 서지적 특징을 정리하고, 사료를 통한 판본의 유통 및 활용 정황을 소급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본 간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각 판본의 정오를 감별하고, 오류를 확인하는 작업도 빠뜨리지 않았다.

결국 이 연구에서는 퇴계 서지의 판본 조사 영역을 확장하고자 한 시도의 일환으로 『古鏡重磨方』의 판본에 대한 관련 기록 및 사료에 대한 검토, 그리고 개별 판본 간 비교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한편, 『古鏡重磨方』에 대한 앞선 연구로 서지학 분야에서는 윤병태에 의하여 寧邊府本과 校書館本の 2종 판본이 조사²⁾된 바 있고, 그 밖에는 주로 본문에 수록된 문학 작품³⁾이나 이들에 대한 철학적 관점의 연구⁴⁾ 등이 이루어졌다.

2. 책의 편찬 및 내용

2.1 편찬 경위

퇴계 선생이 『古鏡重磨方』을 편찬한 시점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이는 선생의 사후 선조 33년(1600) 그의 문하였던 유성룡과 趙穆 등이 「文集」이나 「年譜」를 편찬할 당시 이 책에 대한 기록은 누락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선조 33년(1600) 문하생들에 의한 대대적인 편찬 사업 이후 퇴계의 「遺集」이나 문집의 「續集」 또는 「拾遺」로 보완하면서도 유독 『古鏡重磨方』에 대한 기록은 누락되었다. 뿐만 아니라 선조 33년(1600) 간행된 선생의 「年譜」나 퇴계의 생전 행적을 비교적 상세하게 소급하여 연도순으로 밝힌 기록⁵⁾에도 이 책의 편찬이나

2) 尹炳泰, 『韓國書誌年表』(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2), 102-103.

3) 김성훈, “『古鏡重磨方』과 수양론 - ‘敬’을 강조한 箴·銘 작품을 중심으로,” 『송실어문』 제23집(2009. 12), 119-139.

4) 신구현, “이퇴계의 『古鏡重磨方』이 지닌 수양론적 의의,” 『효정 채수환 박사 고회기념논문집』(1995. 11), 61-82.

간행에 관한 어떠한 내용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책의 편찬 시점은 차치하더라도 『古鏡重磨方』이 퇴계 선생의 생전에 간행되지 않았던 사실은 분명하다. 더불어 선생의 생존 시 지인이 나 문인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작품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선생의 생존 시 간행되었거나 후학이나 문인들에게 공개되었다면, 선생의 사후 『年譜』나 『遺集』 편찬 시 수록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기록으로 선생의 제자인 月川 趙穆이 『古鏡重磨方』을 도산서원에서 우연히 처음 발견하게 된 경위와 趙穆 자신이 이를 세상에 공개할 목적으로 정성껏 手寫한 기록⁵⁾이 전하기도 한다.

한편, 퇴계 선생이 『古鏡重磨方』을 편찬한 시점에 대하여 權五鳳⁷⁾은 퇴계의 나이 59세였던 명종 14년(1559)에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권오봉 선생 이후의 연구 논문들이나 관련 문헌에서도 아무런 비판 없이 선생의 의견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록에는 전거 문헌이 없으므로, 문중의 구전 사실이거나 주변인의 유전되는 설일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권오봉 선생이 밝힌 명종 14년(1559) 己未에 퇴계 선생이 『古鏡重磨方』을 手寫하였다는 기록과 선조 28년(1595) 乙未에 제자 趙穆 선생이 『古鏡重磨方』을 手寫하였다는 『月川先生文集』의 기록과는 연도나 간지 착오의 가능성이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古鏡重磨方』의 편찬 시점에 관한 가장 있는 설득력 있는 기록은 퇴계의 6대손 李守淵(1693-1748)이 18세기 중엽에 편찬한 『退溪先生續集』에 수록된 시문으로 「題古鏡重磨方」이라는 작품이 전한다. 즉, 『退溪先生續集』 권2의 「詩」에는 선생이 지은 시문 102편이 지어진 연도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중 명종 14년(1559) 乙未에는 「題古鏡重磨方」외 2편의 시문이 더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 해(1559)에 선생이 『古鏡重磨方』의 편찬을 마무리하고 시를 지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앞서 권오봉 선생도 이 시문이 지어진 연도에 의거하여,

5) 鄭錫胎 著, 『退溪先生年表月日條錄 1-4』 (서울: 退溪學研究院, 2001-2006).

6) 현종 7년(1666) 刊 『月川先生文集』 「年譜」 제14장 앞면 제3행-제5행.

7) 權五鳳 著, 『退溪家年表』 (서울: 퇴계학연구원, 1989), 379.

『중마방』의 편찬 시점을 명종 14년(1559)으로 비정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退溪先生續集』에 수록된 「詩」, 「書」 등 여러 작품에 대한 저작 연대 등에 대한 편집 오류와 비판의 의견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편찬 시기를 추정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책의 지은 시기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이나 사료가 나타나기 전에는 현시점에서 『古鏡重磨方』의 편찬 시점에 대하여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계 선생의 20여종에 가까운 저술 중 상당수는 그의 노년기에 저술되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다. 결국 전존 문헌이나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막론하더라도, 『古鏡重磨方』이 16세기 중후반 퇴계 선생의 말년 저작이었다는 점에는 큰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선생의 말년에 편찬된 手稿本 『古鏡重磨方』은 퇴계 생존 시에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도구로 활용되었을 것이고, 또 한편 手稿本이 잘 보존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장차 간행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도 엿보이는 부분이다.

이 밖에 일부 문헌에서는 선조 28년(1595)에 쓰여진 월천 조목의 연보 기록⁸⁾에 의거하여 「重磨方」의 편찬 시점을 「月川年譜」의 내용이 작성된 시점으로 부터 20년 전인 선조 8년(1575)으로 산정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당시는 이미 퇴계가 죽은 지 5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단순한 산술 계산으로 인한 誤識으로 여겨진다.

더불어 퇴계의 제자인 월천 趙穆 또한 도산서원에서 입수한 퇴계의 「중마방」을 후대에 전승할 목적으로 정성껏 필사하였다. 하지만 당시에도 여건이 허락되지 않았거나 어떠한 연유로 판본으로 간행되지 못하였고, 선조 40년(1607)에 퇴계의 문도였던 寒岡 鄭述(1543-1620)에 의하여 비로소 초간본이 간행되었다.

한편, 이 책이 바로 인본으로 간행되지 못하였던 배경에 대하여 柳雲龍(1539-1601)의 書信 내용을 참고⁹⁾할 수 있다. 즉, 당시는 임진왜란에 이은 丁酉再亂

8) 현종 7년(1666) 刊 『月川先生文集』 「年譜」 제14장 앞면 제4행.

“... 楣曾出以示人損館二十年後得見於陶山書院 ...”

9) 순조 3년(1803) 刊 『謙菴先生文集』 권2 제32장 앞면 제5행-제9행 「答琴聞遠」.

등으로 나라 전체가 어수선하였던 정황을 기록하였다. 그리하여 『古鏡重磨方』도 널리 간행하고자 한 뜻을 품고, 필사하여 자신들이 고이 간직하고만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대목에서 『古鏡重磨方』의 간행이 지체된 가장 큰 이유는 국가적인 환란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고, 그에 따라 재원이나 인력 조달 등이 쉽게 허락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2.2 본문의 구성 및 내용

『古鏡重磨方』의 본문은 퇴계 선생의 독창적인 저술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데 요긴한 중국 역대 여러 성현들의 문구나 문장을 모아서 편찬한 것이다. 결국 이 책은 전존본에 따라 序跋의 편성 등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본문에 수록된 내용은 모두 한결같이 70편의 箴, 銘, 贊의 3가지 종류의 글들만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본문에 기재된 내용 중에는 우리나라 선현들의 글귀는 수록되지 않았고, 司馬光이나 朱熹, 韓愈 등 중국의 명사 또는 명현들로 일관되었으며, 각각의 문장이나 글 앞에는 저작자를 밝히고 있다. 문장이 인용된 이들은 일찍이 중국의 기원전 11세기 이전 成湯에서부터 14세기 원나라 吳澄(1249-1333)에 이르기까지 모두 25명에 달한다.

본문에 수록된 문장의 종류와 글의 내용에 대해서는 앞선 연구에서 다루어진 바¹⁰⁾ 있으므로, 여기서는 다만 수록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적인 개관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글이 인용된 인물 25명의 시대별 분포는 기원전 商代 1명, 기원전 周代 2명, 唐代 2명, 宋代에 20명으로 송대 유학자들의 문장이 가장 많이 인용되었다. 이처럼 송대의 학자들이 가장 많은 것은 이 시기 성리학이 처음 등장하면서 朱熹 등 뛰어난 학자들을 배출하였던 것과 더불어 『性理大全』 등 여러 저술들이 집대성된 시기였기 때문이다. 물론, 퇴계 선생의 심성 철학이 성리학적 근간에 바탕을 둔 수양론을 강조하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므로,

10) 김성훈, “『古鏡重磨方』과 수양론 - ‘敬’을 강조한 箴·銘 작품을 중심으로,” 『송실어문』 제23집(2009. 12), 125.

이러한 경향은 쉽게 짐작되는 부분이다.

한편, 수록된 글의 형식을 살펴보면, 70편의 작품 중에 銘이 53편으로 가장 많고, 箴이 13편, 贊이 4편으로 銘이 본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贊을 제외한 銘이나 箴은 돌이나 나무 또는 쇠붙이 등에 새겨서 마음을 다스리고 경계하는 글로 형식면에서 유사한 공통점이 있으므로, 銘과 箴이 본문 대부분을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나 『중마방』의 본문에 인용된 글 중에는 책상과 벽, 거울뿐 아니라 세숫대야와 지팡이에 새겨진 글을 수행의 지침으로 삼았던 사례도 등장하여, 기물을 활용한 심신 수양사례가 강조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수록된 작품들을 내용이나 주제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큰 범주는 모든 문장들이 마음을 다스리는 글로 귀결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하지만 이를 좀 더 세분화하여 보면, 심신 수양 방식을 직접 다룬 글이 24편으로 「勿齋箴」, 「夙興夜寐箴」, 「顧齋銘」, 「自修銘」 등이 있다. 또 기물을 주제로 한 작품이 「盤銘」, 「鑑銘」, 「杖銘」, 「紫陽琴銘」 등 20편에 달한다. 그 밖에 座右銘이 5편, 敬과 義를 논한 것이 각각 4편, 마음 자체를 논한 것과 德性에 관한 것이 각 3편, 克己와 仁, 言行에 관한 것이 각각 2편씩 모두 70편에 이른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편성된 『중마방』의 수록 글에 대하여, 퇴계의 말년 저술로 선조 임금에게 올려졌던 『聖學十圖』를 완성하기 예비적인 단계의 편찬 활동으로 간주¹¹⁾하는 관점도 있다.

3. 간본의 유통 및 활용

3.1 간행 현황

『古鏡重磨方』은 본문 분량이 많지 않아 鄭述(1543-1620)에 의해 초간본이 간행될 때부터 단권 1책으로 출판되었으며, 그에 따라 진존본도 비교적 많이 남아

11) 장동표, “퇴계선생과 『古鏡重磨方』,” 『시민교양강좌』 제3집(2005. 12), 119.

있다. 이와 같은 판본의 간행 정황은 여러 사료 및 책판 또는 서책 목록, 문집 등에 나타나는 간행 관련 기록이나 현재까지 남아있는 간본을 통하여 소급하여 살펴볼 수 있다.

앞선 조사에 의하면, 『古鏡重磨方』의 판본은 윤병태에 의하여 2종이 확인¹²⁾된 바 있고, 그 외에 판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현존 기관의 목록에 따르면, 70여 책이 넘는 판본이 국내의 각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필사본이지만 목판으로 간행된 판본도 40여 책에 달한다.

이에 고서의 일반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1910년을 기준으로 전존본의 유형을 조사하여 보면, 선조 40년(1607) 초간본으로 추정되는 9행 14자본, 숙종 11년(1685) 寧邊府에서 간행된 10행 20자본, 영조 20년(1744) 임금의 『御製扁題』 및 金在魯(1682-1759)의 서문이 붙어있는 8행 16자의 校書館 刻本, 고종 8년(1904) 密陽 蘆谷에서 중간된 10행 20자본의 4종으로 압축된다.

전존하는 고본 중에는 필사본도 상당수 있으나, 간본으로 확인되는 것은 이상 4종과 이 판들의 후쇄본이 남아 있을 뿐, 그 외의 판본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나 영조 20년(1744)에 간행된 판본은 그 판을 중앙에 두고 교서관에서 관리¹³⁾하였으며, 초쇄 이후에 영조 41년(1765) 3월에도 재인출하였던 기록이 확인된다. 이 내용에 따르면, 임금이 大司成 朴師訥에게 傳旨을 내려 홍문관에 명하여 『鄉約文』과 『古鏡重磨方』을 인출하여 왕실로 들인¹⁴⁾ 정황을 밝혀두었다.

결국 17세기 초 초간 이후 이 간본들이 각처에 유통되면서 유학자들에게 두루 읽혀졌던 것으로 여겨진다.

12) 尹炳泰 編, 『韓國書誌年表』(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2), 102, 104. 이 가운데 윤병태는 ‘乙丑寧邊府開刊’의 간기가 새겨진 판본을 영조 21년(1745)본으로 비정하고 있다. 이 판본에 대하여 인조 3년(1625) 또는 숙종 11년(1685) 등 목록 작성 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판정하고 있다.

13) 당시 새겨진 판은 『芸閣冊都錄』에 의하면 87판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어도 2질 이상이 판각되어 芸閣에 보관되었음을 알 수 있다.

14) 『承政院日記』 영조 41년 3월 24일 己亥條.

3.2 판본의 유통 및 활용

3.2.1 판본의 유통

『古鏡重磨方』은 전술한 바와 같이 퇴계 선생의 제자인 月川 趙穆(1524-1606)에 의하여 도산서원에서 선조 28년(1595) 필사된 형태로 처음 발견되었고, 간행은 퇴계의 문하생이었던 寒岡 鄭述에 의하여 선조 40년(1607)에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간행 직후에는 안동과 예천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퇴계 문하생들 위주로 애독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판본은 초간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평안도 寧邊府에서 속간되었으니, 선생의 저술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전국으로 파급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판본이 유통되었거나 활용되었던 정황을 사료나 책판목록, 문집 등의 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2.1.1 관찬 사료에 기록된 판본의 유통 사례

관찬 사료에서 「중마방」의 유통 사례 중 가장 빠른 기록은 영조가 임금이 되던 해(1724)에 처음 나타난다. 당시는 초간본이 세상에 유통된 지 이미 100여년이 지난 시점으로, 판본은 이미 왕실에서도 유통되고 읽혀졌던 정황을 알 수 있다. 즉, 영조는 이 해(1724) 10월 无妄閣에 나아가 趙遠命, 成德潤 등의 신하들과 대화하였다. 여기서 임금이 신하 成德潤에게 건넨 말 중에 「心經」, 「史記」, 「孟子」, 「小學」 등을 진강하는 것도 유익하겠으나, 신하 李巨源의 뜻을 받아들여 『古鏡重磨方』도 春坊에 비치¹⁵⁾하여 둘 것을 지시하였던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지시가 있는 후 영조 3년(1727)에는 春坊에 『古鏡重磨方』과 『四勿箴』이 이미 비치되었던 정황이 드러나고, 이 책들은 홍문관에 있던 활자본 「대학」과 「중용」의 합책본과 더불어 임금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회람¹⁶⁾되기도 하였다.

15) 『承政院日記』 영조 즉위년(1724) 10월 18일 戊子條.

한편, 영조 19년(1743)에는 전존본이 남아 전하는 후술할 영조 20년(1744) 校書館本의 판각이 도모되었다. 당시 임금 영조는 이 해(1743) 4월에 『聖學輯要』 및 『聖學十圖』와 『古鏡重磨方』을 누가 지었는지 신하 李成中에게 물었으며, 특히 후자 두 책에 대해서는 퇴계 이황이 輯撰한 것이라는 대답을 들은 뒤, 두 책을 芸館인 교서관에서 목판으로 개간하도록 명¹⁷⁾하였다.

이와 같은 왕명의 후속 조치는 즉각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되나, 완료된 정황은 다음 해에 나타난다. 즉, 영조 20년(1744) 2월에는 『小學訓義』와 더불어 『光國志慶錄』, 『古鏡重磨方』, 『聖學十圖』 이상 4종은 모두 1권으로 된 것으로, 刊板 작업이 종료되었으니 전체를 먼저 인출할 것을 명¹⁸⁾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실물자료의 기록 상 金在魯가 서문을 쓴 것은 그로부터 한 달 뒤인 영조 20년(1744) 3월이었으니, 印出 작업이 실행되기까지 한 달 이상의 시간차가 확인되기도 한다. 간행 직후 이 책은 金在魯¹⁹⁾를 포함한 여러 大臣과 宗宰, 儀賓들에게 반사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왕조실록』에는 영조가 『古鏡重磨方』의 篇題를 지은 사실²⁰⁾과 정조 조에도 수차례 경연에서 강론에 활용할 목적으로 『孟子』, 『史記』 등 다른 책들과 함께 제침을 붙이며 책을 정비²¹⁾한 사례가 보여지기도 한다. 비슷한 시기 정조 조에는 이 책을 왕실에서 여러 차례 베껴 쓴 사실²²⁾이 확인되는 등 『古鏡重磨方』은 조선 말기 순조 조에 이르기까지 왕실에서 두루 읽혀지고 유통되었던 기록을 살펴볼 수 있다.

3.2.1.2 책판 목록에 수록된 판본

책판에 대한 기록은 판본의 간행이나 유통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중요한

16) 『承政院日記』 영조 3년(1727) 10월 21일 癸卯條.

17) 『承政院日記』 영조 19년(1743) 4월 22일 乙巳條.

18) 『承政院日記』 영조 20년(1744) 2월 17일 乙丑條.

19) 『承政院日記』 영조 20년(1744) 4월 19일 丙寅條.

20) 『英祖實錄』 영조 20년(1744) 3월 5일 癸未條.

21) 『日省錄』 정조 21년(1797) 5월 2일 辛丑.

22) 『日省錄』 정조 22년(1798) 5월 27일 庚寅 외 다수.

자료가 된다. 예컨대 지역이나 특정 장소에 책판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곧 이를 인출하여 활용하였다는 사실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책판 목록』 상 판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기록은 간행을 목적으로 지역 또는 특정 장소에서 판각 활동을 하였거나, 다른 지역에서 새겨진 경우라도 이 판을 보관한 정황을 알려주는 내용이기도 하다.

책판 목록에 수록된 『古鏡重磨方』책판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책판목록에 수록된 『古鏡重磨方』

목록명(작성연도)	판명(서명)	지역명	내용	비고
慶尙道冊板(1730)	古鏡重磨方	禮安	九張二折	·
冊板置簿冊(1740)	古鏡重磨方	禮安	白紙一卷十七丈半	·
芸閣冊都錄(1760)	古鏡重磨方篇	校書館	八十柒板	·
各道冊板目錄(1778)	古鏡重磨方	禮安	容入紙二束十八張 刵	·
"	古鏡重磨方	校書館	·	·
鏤板考(1814)	古鏡重磨方	禮安 寧邊府	李朝李滉編 … 有英宗御製序 禮安陶山書院藏刵缺 印紙一牒八張 寧邊府印紙十六張	[1744 金在魯 序文本]
各道冊板目錄(1840)	古鏡重磨方	禮安	容入紙二卷十張	·
"	古經[古鏡]	寧邊	一篇容入紙 十六張	‘古鏡’의 誤字
林園十六志(1845)	古鏡重磨方	禮安 寧邊府	禮安陶山書院藏印紙一卷八張刵缺 寧邊府藏印紙十六張	·
嶺南冊板[19세기]	古鏡重磨方	禮安	二卷九張二折	·
冊板錄[19세기]	古鏡重磨方	禮安	白紙一束十八張	·

이상과 같이 9종의 목록에 수록된 「중마방」 책판의 보유 지역 및 장소는 禮安과 寧邊府, 校書館 3곳이다. 이들 지역에서 간행된 판본 3종은 현재까지도 모두 인본이 남아 전하고 있으므로, 위 사실이 재차 확인된다.

다만, 영조 36년(1760)에 작성된 『芸閣冊都錄』에는 「중마방」 책판이 87판 있

었다고 하였으므로, 전존본으로 미루어 양면판각으로 한 책판이 2질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현종 6년(1840) 작성된 『各道冊板目錄』 기재 내용 중 「古經」이라는 책판명은 『古鏡重磨方』을 줄여 쓴 것으로 보이고, 이는 『鏤板考』 등 앞선 목록상 寧邊 지역 藏板의 앞뒤 책판명이나 소요된 종이까지도 모두 일치하므로, ‘古鏡’을 오기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전존본 중에서는 고종 8년(1904) 밀양의 蘆谷에서 새겨진 판이 책판 목록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3.2.1.3 서책 목록에 수록된 판본

책판과 더불어 서책에 대한 목록은 판본의 유통 정황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이다. 이에 연구자가 접근 가능한 조선시대 서목 중 『古鏡重磨方』을 보관하고 있었던 곳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조사 대상은 『朝鮮時代書目叢刊』을 비롯하여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등 기관 및 개인 소장 『서책 목록』 20여종을 참고하였다.

<표 2> 서책 목록에 수록된 『古鏡重磨方』

서책 목록(작성연도)	서명	보관처	내용	비고
書冊秩[17세기]	古鏡重磨方	陶山書院	一冊	도산서원
書冊目錄(1815)	古鏡重磨方	禮安	一卷 壯紙一束十四張 頑不用	·
閣古館書目[1868 이전]	古鏡重磨方鈔	校書館	一卷	·
西庫書目[1868-1869]	古鏡重磨方	西庫	一卷 李滉 撰	장서각본
書冊目錄[1888년 이후]	古鏡重磨方	禮安(陶山書院)	一卷 壯紙一束十四張 頑不用	장서각본
春坊藏書總目抄本[1905 이전]	古鏡重磨方篇題	侍講院	三帙各一帖 甲子編	장서각본
春坊藏書總目(1905)	古鏡重磨方	侍講院	陸帙各一冊 李滉編	규장각본
奎章閣書目樓下庫目錄(1907)	古鏡重磨方鈔	奎章閣 樓下庫	一卷	·
嶺南各邑校院書冊錄(1907)	古鏡重磨方	西岳書院(慶州府)	一卷	·

특히, 이러한 서목 중 필사본 『書冊秩』은 도산서원의 장서 점검 목록이다. 『古鏡重磨方』뿐 아니라 다른 서적들의 서책 입수 경위를 밝혀놓아 특기할 만하다. 그리고 『閔古館書目』에 수록된 「重磨方鈔」의 경우 목록명의 단순 판단으로 중국서를 주로 보관하였던 閔古館의 소장 판본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서목의 표지에 쓰여진 내용과 수록된 책들의 서명을 일별하면 이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표지에는 隆文樓와 隆武樓 및 新內下書의 목록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으므로, 서명 또한 조선본들이 주로 수록된 것으로 보아 장서 보관처는 교서관이라는 사실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기록을 통해 왕실의 건물 내 규장각의 西庫 등 다양한 소장처에 『古鏡重磨方』이 보관되어 있었고, 경주와 禮安 등 지방에서도 이 판본을 소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책판 목록이나 서책 목록에 제시된 판본들 외에도 私家에 전하는 판본들도 적지 않다. 결국 『古鏡重磨方』은 17세기 초 초간본이 간행된 이후, 중앙이나 지방을 막론하고 판본은 여러 기관이나 소장처에 남아 전하면서, 동시에 유생이나 학자, 중앙 관료들 사이에서 두루 유통되고 읽혀졌던 정황이 짐작된다.

3.2.1.4 문집에 수록된 판본의 유통 기록

『古鏡重磨方』은 선조 40년(1607) 寒岡 鄭述(1543-1620)에 의하여 초간본이 간행되었지만, 이보다 앞서 당시 유학자들의 문집에 회자되기도 하였다. 그 시작은 전술한 바와 같이 趙穆 선생의 『月川先生文集』에서 비롯된다. 예컨대 선조 28년(1595) 당시 조목 선생은 판본이 간행되기 전에 우연히 도산서원에서 퇴계 선생 『古鏡重磨方』 手稿本을 처음 발견하고, 본인이 친필로 이를 精寫한 내용²³⁾이 그 사례이다.

또한 이듬 해(1596) 8월에 같은 李滉의 문하생이자 예안에 머물고 있던 琴蘭秀(1530-1604)도 『古鏡重磨方』을 필사하여 친우에 전달²⁴⁾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

23) 顯宗 7년(1666) 刊 『月川先生文集』 「年譜」 제14장 앞면 제3행.

응하는 기록으로 申之悌(1562-1624)는 선조 31년(1598) 惺齋 琴蘭秀로부터 필사된 『古鏡重磨方』을 건네받았다²⁵⁾고 적고 있으나, 琴蘭秀가 건넨 시점(1596)과는 2년의 시간차가 보이기도 한다. 그 밖에도 앞서 언급하였던 퇴계의 문하생 柳雲龍(1539-1601)이 선조 33년(1600) 琴聞遠과 주고받은 書翰²⁶⁾에 따르면, 『古鏡重磨方』은 당시까지도 나라가 어수선하여 간행되지 못하였고, 자신들이 정성껏 필사하여 장차 廣布하고자 의도를 기록으로 남겨두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퇴계의 수고본은 趙穆에 의하여 세상에 알려진 뒤부터는 그의 문하생들에 의해 주변으로 전파시키는 것에는 거리낌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판본이 초간되던 해 寒岡 鄭述는 그 해(1607) 1월 안동부사로 부임하여 자신이 직접 『古鏡重磨方』의 서문을 작성²⁷⁾하였다. 鄭述는 당시 관직에 있으면서 같은 해(1607)에만 『太極圖說』과 『啓蒙圖書』, 『西原世稿』를 판각하였고, 『古今人物志』, 『福州志』 등을 간행하는 등 많은 출판 사업을 이루어낸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한편, 李喜朝(1655-1724)도 그의 문집에서 퇴계 선생의 글을 격찬하며 자신도 『古鏡重磨方』의 방식과 내용을 참고삼아, 우리나라 12명 선현들의 글을 抄出²⁸⁾하였음을 밝혔다. 하지만 이 책은 후대에 간행으로 이어진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이보다 조금 뒤의 시기 尹光紹(1708-1786)는 영조의 명을 받아 『續五禮儀』를 편수하고 『皇壇儀』를 편차할 당시, 임금 영조가 『古鏡重磨方』의 篇題를 親製할 때 參聞한 소회를 적어두기도²⁹⁾ 하였다.

이 밖에도 송시열의 5대손 宋煥箕(1728-1807)도 재향시 손수 『古鏡重磨方』을 繕寫하여서 강의에 임하였던 기록³⁰⁾을 밝히기도 하였으며, 정조가 『중마방』

24) 순종 3년(1909) 刊 『惺齋先生文集』 권3의 「年譜」 제14장 뒷면.

25) 정조 13년(1789) 刊 『梧峯先生文集』 「別集」의 「年譜」 제8장의 앞면.

26) 순조 3년(1803) 刊 『謙菴先生文集』 권2 제32장 앞면 「答琴聞遠」.

27) 憲宗 7년(1841) 刊 『寒岡先生文集』 別集 권2의 「雜著」의 「書古鏡重磨方後」.

28) 영조 30년(1754) 刊 『芝村先生文集』 권제20의 제23장의 뒷면 「書」.

29) 1915년 刊 『素谷先生遺稿』 권1의 제28장의 앞면 「疏」.

30) 고종 연간 刊 『性潭先生集』 권5의 제29장 뒷면 「書」.

을 즐겨 보았다는 기록³¹⁾은 『弘齋全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柳麟錫(1842-1915)은 『중마방』을 즐겨 읽고, 이에 대한 시를 짓기도³²⁾ 하는 등 조선 말기까지 여러 유림의 문집에서 『중마방』에 대한 유통 및 열독 정황은 빈출하고 있다.

3.2.1.5 읍지 및 기타 자료에 수록된 판본

서적 또는 책판의 보관이나 유통 정황은 重記, 邑誌 또는 물품 장부격인 置簿冊이나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한 傳掌記 등의 자료에서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에 『古鏡重磨方』을 수록한 2차 자료를 예시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물론,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읍지와 중기 등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여기서는 단적인 예를 보이는 정도로 그쳤다.

<표 3> 읍지 및 기타자료에 수록된 『古鏡重磨方』

자료명(작성연도)	서명(책판명)	내용	비고
進講冊子次第(1775)	古鏡重磨方	重講	侍講院 編
藏書傳掌記(1787)	古鏡重磨方	一冊	陶山書院(光明室)
鄕校書冊祭器齋服(1795)	古鏡重磨方	壹卷乙亥以後元無置付故不知見失於何年	居昌鄕校 編
藏書置簿(1875)	古鏡重磨方	一冊	陶山書院 編
湖南邑誌(1895)	古鏡重磨方	[興陽縣 書籍條에 수록]	[全羅監營 編]
禮安郡邑誌(1899)	古鏡重磨方板	刊	·
列聖朝繼講冊子次第[19세기 말]	古鏡重磨方抄	戊午五月二十七日始講	侍講院 編

이상의 <표 3>에서 살펴보듯이, 시강원에서 이 책을 이용하여 진강한 것을 비롯하여 호남의 興陽縣과 도산서원의 光明室에는 인본을 비치하였다. 또한 예안군에는 책판이 비치되는 등 전술한 바와 같이 중앙과 지방, 영호남을 넘나드는

31) 순조 14년(1814) 刊 『弘齋全書』 권178의 「日得錄」 제18권 제5장의 앞면.

32) 1917년 刊 『穀菴先生文集』의 권제2의 제11장 「敬讀古鏡重磨方」.

판본의 유통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3.2.2 판본의 활용

이상에서 살펴본 판본의 출판 및 유통 양상을 토대로 『古鏡重磨方』의 활용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그 범주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퇴계의 생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古鏡重磨方』은 선생의 사후 측근이었던 문도 및 문하생들을 중심으로 많이 읽히고 전파되었다는 점이다. 그러한 사례는 趙穆 선생 자신이 『重磨方』을 淨書하여 세상에 알리고자 한 기록에서부터, 李滉의 제자인 琴蘭秀(1530-1604)와 申之悌(1562-1624) 등도 『古鏡重磨方』을 親書하여 문우 및 師弟들과 交友한 정황에서 엿볼 수 있다. 또한 초간본이 간행된 선조 40년(1607) 이후에도 李滉의 제자들은 이 책을 敬讀하였고, 본문을 抄出하여 文友에게 전달하였다는 기록 등이 빈출하기 때문이다.

둘째, 조선 후기 왕실에서 세자 교육의 강독 교재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이다. 왕실에서는 판본을 春坊에 비치하여 두고 進講에 사용하였으며, 임금에게 회람시키기도 하는 등 그 활용 사례는 18세기 초부터 등장한다. 하지만 18세기 중엽 이후 신하들이 세자 교육에 入侍할 때 『古鏡重磨方』, 『小學』, 『四勿箴』, 『孟子』 등의 교재를 가지고 임하였다는 기록은 끊임없이 보인다. 그리고 18세기 중엽인 영조 19년(1743)에는 왕명으로 도서관에서 직접 판본의 간행을 도모하였다는 사실은 이러한 정황을 더욱 뒷받침한다. 그 결과 『古鏡重磨方』의 인본과 책판은 이 시기 작성된 책판 목록이나 『春坊藏書總目』, 『閱古館書目』 등의 서책 목록에 기재되어 전하게 되었다.

셋째, 『古鏡重磨方』이 세상에 알려지고 판본으로 간행된 뒤, 이 판본은 후속 저술된 수양서들의 선례가 되었고, 저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李禧朝(1655-1724)가 편찬한 『古鏡重磨方續後』와 李德懋(1741-1793)의 『士小節』, 그리고 朴在馨(1838-1900)이 편찬한 『海東續古鏡重磨方』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특히, 李禧朝는 자신이 편찬한 『古鏡重磨方續後』³³⁾에서 퇴

계 선생의 예에 따라서 箴과 銘, 贊에 賦를 抄出하여 續卷을 이루었다고 하였다. 다만, 그 범위는 東方의 문집에서 취하였던 바, 圃隱 선생에서 大谷 朴彝敍(1561-1621) 선생까지 12명의 賢人들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명기하였다. 하지만 이 책은 후대에 판본으로 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朴在馨은 자신이 편찬한 『海東續古鏡重磨方』의 권말 識文³⁴⁾에 다음과 같이 밝혀두기도 하였다. 즉, 퇴계 선생은 일찍이 朱子를 비롯하여 옛 성현의 箴銘을 모아 『古鏡重磨方』을 편찬하였다. 하지만 이는 모두 紫陽 즉 중국 諸賢의 詩와 글귀였다. 이에 자신은 海東 즉 우리나라 성현의 箴과 銘을 널리 수집하여 귀감으로 삼고자 하였다. 결국 朴在馨은 숙종 임금을 비롯하여 趙光祖, 周世鵬, 許穆, 李彥迪, 李滉, 曹植 등 20여명의 우리나라 先賢의 글귀를 수록하였다. 다시 말해, 저술의 체제나 형식면에서는 퇴계 선생의 방식을 모방하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문사들의 글귀를 채택한 문화적 자신감을 표출한 사례로 남게 되었다.

그 밖에도 조선 후기 여러 유림의 문집에 나타나는 기록에 의하면, 비단 退溪와의 직접적인 인연이 없다 하더라도, 『古鏡重磨方』을 愛讀하거나 淨書한 기록이 빈출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古鏡重磨方』은 조선 후기 선비들의 수양서로 두루 愛讀되고 필사되었으며, 간본과 더불어 계승되어 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현재 고문헌 소장 기관의 목록을 살펴보더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즉, 기관의 목록 상 『古鏡重磨方』의 전존본은 寫本의 종수가 刊本보다 두 배 이상의 수량으로 남아 전하기 때문이다.

33) 영조 30년(1754) 刊『芝村先生文集』권20 제23장 「題跋」 제8행-제10행.

“... 近又於我東方文集中依李先生例抄出箴銘贊賦 / 若干篇爲續卷且就先君子所編濂洛正音自圃隱 / 至大谷凡十二賢皆各取詩意之可警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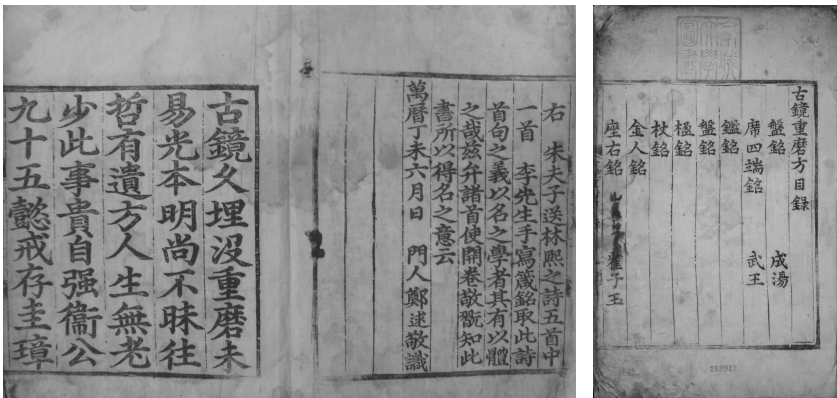
34) 고종 21년(1884) 刊『海東續古鏡重磨方』제35장 「海東續古鏡重磨方跋」 제3-7행.

4. 전존본 및 판본 비교

4.1 전존본의 특징

이 장에서는 전존본의 간행 경위나 판본에 나타나는 干支의 간년 추정 등 판본의 서지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4종 異本 사이에 드러나는 본문의 편성 체제 및 본문 교감을 통한 내용적인 차이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4.1.1 [선조 40년(1607)] 刊 初刊本 (9行 14字本)



<그림 1> 선조 40년(1607) 刊 추정 『古鏡重磨方』의 卷首「識文」 및 目錄 제1장

이 판본은 권수에 鄭述의 識文이 붙어 있는 9행 14자본이다. 판본에는 간기가 없고, 책머리에 萬曆 丁未年(1607)에 작성된 鄭述의 識文이 첨부되어 있다. 판본의 개략적인 형태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四周雙邊, 半廓 21.2×17.3 cm, 有界, 9行14字, 上下內向不定魚尾 ; 30.1×21.2cm

圖示한 9행 14자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계명대학교 도서관 등 여러 기관에 남아 있으며, 개인 소장으로 전하는 판본 중에는 판의 상태가 양호하고, 글자의 상태가 선명한 초쇄본으로 보이는 간본이 보이기도 한다.

한편, 이 판의 간행 경위는 간본에 첨부된 鄭述의 識記 및 『古鏡重磨方』을 처음 발견한 月川 선생의 문집 기록, 그 밖에 인력과 물력을 동원하여 판본의 간행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寒岡 鄭述가 주고 받은 편지글 등을 참고할 수가 있다. 즉, 鄭述는 識文에서 서명의 유래를 朱熹의 詩에서 인용한 것이라 명기하였고, 퇴계의 글이 진실로 옛 거울을 닦는 지극한 묘방이 되므로, 이 책을 간행하여 널리 알리고자 하였음을 밝혀두었다. 또한 본문보다 큰 大字의 識記를 앞에 붙여두는 것은 책을 읽는 독자들이 제목의 경위를 알고, 책의 내용을 깊이 음미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 하였다.

요컨대, 초간본 『古鏡重磨方』의 간행 경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찬술은 퇴계 선생의 사후 25년이 지난 시점인 선조 28년(1595) 도산서원에서 필사된 형태로 月川 趙穆 선생에 의하여 처음 발견되었다. 필사된 형태로 책을 발견한 月川 선생은 간행을 염두에 두고, 이를 재차 정성껏 써서 보관하였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퇴계 선생의 문하생들 또한 이를 필사하여 文友에게 전달하는 등 사본 형태로 제자들 사이에서만 주로 유통되었다. 하지만 얼마 후 壬辰倭亂과 丁酉再亂이 연이어 발발하는 등 혼란한 시기가 이어져 간행은 계속 지체되었다. 결국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시기인 선조 40년(1607)에 安東大都護府使로 부임한 月川의 제자 寒岡 鄭述는 都護府使로서 동원할 수 있는 인력과 물력을 바탕으로 판본을 初刊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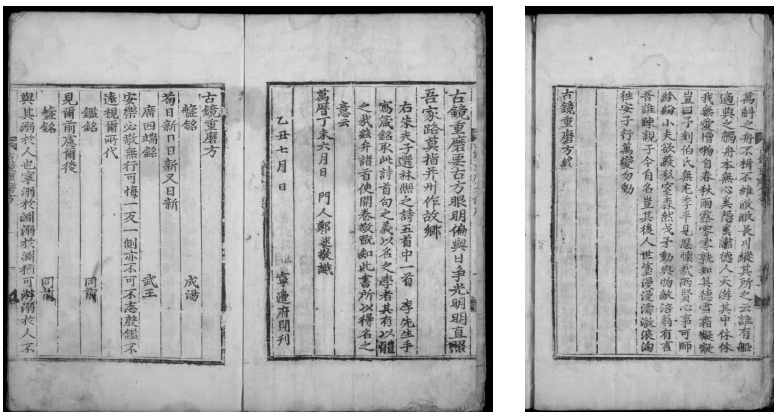
한편, 실물자료로 전존 판본은 배제하더라도 책판목록의 기록으로 미루어, 17세기 禮安에서 『古鏡重磨方』이 간행되었던 사실만은 틀림없다. 이와 더불어 萬曆 丁未에 쓰여진 鄭述의 識記, 그리고 본문을 찍은 종이 등 외형적인 상태를 종합하여 보면, 이 판은 禮安 지역에서 선조 40년(1607)에 새겨진 초간본으로 추정된다.

비록 판본에 간기가 남아 있지 않으나, 책이 선조 40년(1607)에 간행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 근거도 있다. 즉, 識記를 작성한 寒岡 鄭述의 약력이

그러한 예이다. 왜냐하면 전술한 바와 같이, 『古鏡重磨方』이 간행되던 해(1607) 鄭述는 安東 大都護府使를 맡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 해(1607)에 禮安의 陶山 書院과 易東書院을 여러 차례 드나들며, 退溪와 月川에게 참배하기도 하였다. 또한 官力の 힘을 빌려, 같은 해(1607)에 『太極圖說』, 『啓蒙圖書』, 『西原世稿』, 『古今人物志』, 『儒先續錄』, 『福州志』를 安東都護府에서 판각해 내었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古鏡重磨方』의 출판에도 손수 간행 경위를 밝힌 識記를 작성하는 등 그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 초간본은 후대에 여러 차례 인출되었으며, 이는 전존본의 인출 상태 및 확연하게 차이나는 판의 마멸 정도로 식별된다. 또한 전존본 중에는 鄭述의 지문이 권말에 편철되어 전하는 판본도 여러 종 남아 있다.

4.1.2 [숙종 11년(1685)] 刊 寧邊府 刻本 (10行 20字本)



<그림 2> 숙종 11년(1685) 刊 추정 『古鏡重磨方』의 간기 및 권말

이 판본은 권수에 鄭述의 識文을 새긴 뒤 같은 장 마지막 행에 ‘乙丑七月日 寧邊府開刊’이라는 간기를 새긴 10행 14자의 본문 체제를 갖추고 있다.

판본에서는 특히, 권수의 識記가 5행의 大字로 새긴 초간본과 달리 9행의 小字로

鄭述의 識文을 판각하였다. 판본의 개략적인 형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四周雙邊, 半廓 21.1×15.7 cm, 有界, 10行 20字, 上下內向有紋魚尾; 31.4×20.2cm

한편, 이 판본은 刊記에서 명시한 ‘乙丑’이라는 干支로 인하여, 다양한 간행 시기로 추정되어 목록 상 혼선이 야기되는 등 판각 시기를 소급하여 비정하기 쉽지 않다. 즉, 소장기관이나 목록 작성자에 따라 인조 3년(1625)에서부터 숙종 11년(1685), 영조 21년(1745), 순조 5년(1805)과 고종 2년(1865)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점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책판 목록의 기록에 따르면, 정조 2년(1778) 이전 寧邊府에는 『古鏡重磨方』을 비롯하여, 『大學』과 『孟子』, 『書傳』, 『詩傳』, 『心經』 등의 책판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순조 5년(1805)과 고종 2년(1865)에 판각되었다는 설은 일축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조 3년(1625) 판각, 숙종 11년(1685) 판각, 영조 21년(1745) 판각되었다는 3가지 관점이 남게 된다.

이에 추정을 구체화하자면, 책판 목록에 나타난 책판의 상태에서 ‘或刊’으로 기록되었던 점, 당시 함께 보관된 『大學』, 『孟子』, 『詩傳』, 『書傳』, 『心經』 등의 經書들이 모두 동일한 간기 형식을 가진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즉, 이 판본들의 간기는 ‘乙丑[五]月日 寧邊府開刊’의 형식으로 모두 일치한다. 다만, 새겨낸 月만 달라서, 세부적으로는 『大學章句大全』, 『論語集註大全』, 『孟子集註大全』, 『中庸章句大全』은 4월, 『周易傳義大全』과 『心經附註』 5월, 『書傳大全』 6월 『周易諺解』 및 『詩傳大全』, 『古鏡重磨方』 7월 등과 같다. 더욱이 이 판본들은 본문의 새겨진 서체와 글자의 크기, 본문의 체제도 같아 10행 20자의 동일한 行數에 字列에서 한두 글자의 차이가 있고, 版心の 魚尾도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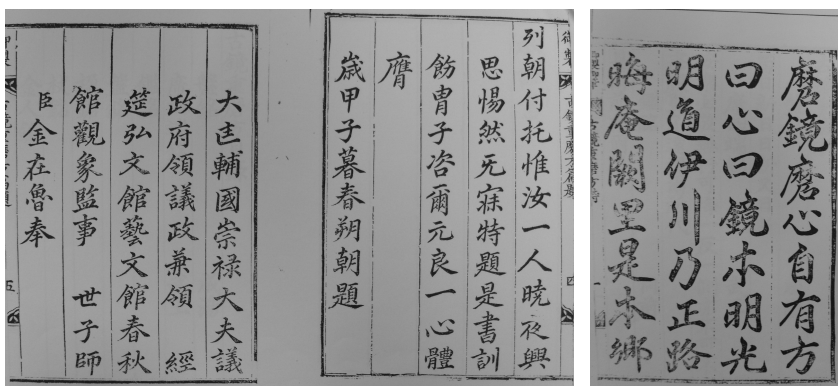
따라서 이 판본들은 정확한 연도를 알 수는 없으나, ‘乙丑’년에 寧邊府에서 寧邊府使 주도로 판각된 판본본의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새겨진 뒤에는 이러한 經書 판본 중 상당수는 중앙으로 上送되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바, 이는 전존본에서 모두 ‘春坊’, ‘侍講院’ 등의 印記가 날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상에서 밝힌 여러 판본들을 조사하게 되면, ‘乙丑’이라는 간지의 해당

연도를 추정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이에 개별 판본에 대하여 기록을 찾던 중 『心經附註』에서 ‘崇禎五十八年乙丑五月日 寧邊府開刊’이라는 간기가 새겨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판본들은 모두 간기를 새길 때 본문의 마지막 행 앞부분에 몇 글자를 띄우고, ‘乙丑[]月日 寧邊府開刊’의 형식으로 동일하게 판각하였다. 즉, 판이 새겨진 형식 및 行字數, 종이의 지질 등 여러 면에서 『心經附註』를 비롯한 나머지 판본에서도 ‘崇禎五十八年’이라는 문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추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古鏡重磨方』의 간기에 명시된 ‘乙丑’이라는 干支는, 숙종 11년(1685) 乙丑年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판본의 형식 및 전존본의 상태, 『冊板目錄』의 기록과 더불어 寧邊府에서 함께 간행되었던 다른 판본의 간지와 판의 형식, 간행 기록을 아울러 추정한 사실임을 밝혀둔다.

4.1.3 영조 20년(1744) 刊 校書館 刻本 (8行 16字本)



<그림 3> 영조 20년(1744) 刊 『古鏡重磨方』의 卷首 「金在魯 序文」 및 英祖 御筆

이 校書館本의 간행에 앞서 중앙의 왕실에는 영조 1년(1724)에 이미 『古鏡重磨方』을 春坊에 비치하여 두었고, 영조 3년(1727)에는 세자의 강학 교재로 활용하는 등 그 유통 사실이 확인되었다. 당시 조정에서 세자 교육 등에 사용된 판본은

영변부에서 寧邊府使가 四書類와 함께 판각하여 중앙으로 上送한 판본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동일한 ‘乙丑’ 간기를 가진 四書類 간본과 함께 寧邊府 刊『古鏡重磨方』이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남아 있으며, 이들 인본에는 공히 ‘侍講院’ 등의 印記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로 初刊本『古鏡重磨方』도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나, 이 판본에는 어떠한 印記도 날인되어 있지 않아, 당시 세자교육에 활용된 판은 숙종 11년(1685) 寧邊府 刊本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영조는 재위 19년(1743) 영변부판이 왕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古鏡重磨方』을 교서관에서 재차 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임금의 지시는 왕실의 필요성 및 퇴계 선생을 높이 평가하였던 자신의 의도에서 비롯되었고, 영조는 『聖學輯要』와 더불어 『聖學十圖』, 『古鏡重磨方』을 교서관에서 목판으로 개간토록 명³⁵⁾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진존본으로 판단컨대, 寧邊府版이 판의 크기가 작고 조잡한 측면도 중간을 도모하게 된 동기로 여겨지기도 한다. 왜냐하면 영변부판에 비하여 교서관에서 새겨진 판은 글자와 판의 크기가 크고, 판각 상태도 아주 뛰어나기 때문이다.

교서관본의 판각은 영조 19년(1743) 4월에 왕의 지시가 있는 후 바로 이행되지는 않았다. 이는 판각의 실무가 종료된 시점이 왕명이 하달된 시점으로부터 10개월이 지난 영조 20년(1744) 2월³⁶⁾에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판각이 완료된 뒤 인출 또한 연이어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같은 해(1744) 3월에는 함께 새겨졌던 『光國志慶錄』, 『聖學十圖』 등과 더불어 인쇄하는 순서에 대한 논의가 진행³⁷⁾되었다. 또한 임금은 영의정 金在魯에게 御製 篇題의 書寫를 맡겼으며, 서사 작업은 같은 해(1744) 3월 14일에 일단락³⁸⁾되었다.

그 뒤 판본은 같은 해(1744) 4월 18일에 諸臣들에게 반사³⁹⁾되었으니, 책의 인출 시점은 영조 20년(1744) 3월 14일과 4월 18일 사이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35) 『承政院日記』 영조 19년(1743) 4월 22일 乙巳條.

36) 『承政院日記』 영조 20년(1744) 2월 17일 乙丑條.

37) 『承政院日記』 영조 20년(1744) 3월 1일 己卯條.

38) 『承政院日記』 영조 20년(1744) 3월 14일 壬辰條.

39) 『承政院日記』 영조 20년(1744) 4월 18일 乙丑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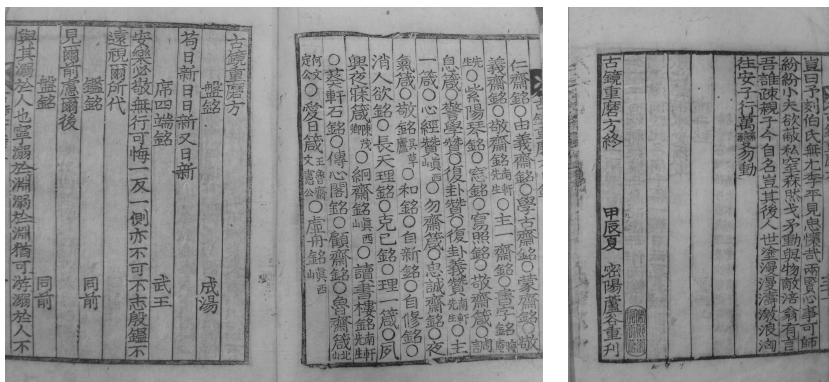
이 판은 왕명으로 간행이 시작되었던 바, 전존본의 형식과 체제 또한 다른 판들과는 차이가 난다. 이를테면 卷頭에는 영조가 지은 ‘御製古鏡重磨方篇題’를 수록하였고, 뒤이어 목록을 새긴 다음 英祖가 親書한 ‘古鏡重磨方詩’를 새겼으며, 저본에 나타난 鄭述의 識文은 권말로 돌리는 등 일부 편성상의 변화가 시도되었다.

이 교서관 각본은 형태면에서도 초간본이나 영변부판보다 크게 제작되었다. 형태사항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四周雙邊, 半廓 23.8×16.5 cm, 有界, 8行 16字,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 33.4×21.5cm

한편, 이 판의 본문 체제는 초간본이 9행 14자본이고, 당시 왕실에서 유통되었던 寧邊府 刊本이 10행 20자인데 비해, 판하본을 새로 서사하여 간행한 8행 16자본이다. 그리고 판을 새길 당시 書寫의 저본이 禮安의 초간본인지 영변부 판관본인지 현시점에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와 더불어 金在魯가 영조의 篇題를 서사한데 반하여, 판하본을 淨書한 이는 春坊의 官員으로 확인⁴⁰⁾될 뿐 그 인명은 확인되지 않는다.

4.1.4 고종 8년(1904) 刊 密陽 蘆谷版 (10行 20字本)



<그림 4> 고종 8년(1904) 刊 『古鏡重磨方』의 卷首 및 卷末

40) 『英祖實錄』 권제59 영조 20년(1744) 甲子 3월 5일 癸未條.

이 판은 비교적 최근인 20세기 초에 새겨진 간본으로, 권말에 ‘甲辰’년의 간기와 盧相稷(1855-1931)의 발문이 붙어 있다.

판본의 말미에 첨부된 盧相稷의 발문에 따르면, 이 판이 10행 20자의 체제로 판각된 경위를 알 수 있다. 발문에는 盧相稷이 이 판의 간행 시 재원을 조달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던 정황을 밝혀두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살펴보면, 『古鏡重磨方』은 『四書』와 『孝經』, 『小學』을 읽은 다음에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으로, 정조 임금 또한 이 책을 元子の 강독 시 필수 교재로 삼았다. 마침 盧相稷 자신의 집안에 寧邊府本이 한 책 전하는 것이 있어서, 이를 토대로 판하본을 다시 써서 이 판을 重刻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즉, 盧相稷이 재원을 마련하고 蘆谷에서 중간 하되, 판하본 서사 시 기준이 되는 저본은 영변부판을 토대로 간행하였던 바, 본문의 기본 체제는 10행 20자의 寧邊府本과 동일하게 판각되었던 것이다.

이 판의 판각처인 蘆谷은 지금의 密陽市 북쪽 丹場面 蘆谷洞 일대로, 이 지역은 발문을 작성한 盧相稷이 활발한 문헌 출간활동을 하면서 중장년의 시기를 보낸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이 인본을 새긴 목판은 18판이 누락됨 없이 발문을 작성한 盧相稷의 후손인 盧在燦씨에 의해 1979년에 밀양의 시립박물관으로 기증되어, 현재까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기도 하다.

인본의 외형적인 면에서 蘆谷 重刊版은 앞서 살펴본 3종의 판본과 비교하면, 판형이 가장 작고 본문은 10행 20자를 조밀하게 새겨 두었다. 판의 형태사항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四周單邊, 半廓 19.5×14.6 cm, 有界, 10行20字, 上下向二葉花紋魚尾 ; 28.9×18.9 cm.

그 밖에 일부 문헌에서는 이 판본이 새겨진 장소에 대하여 盧相稷이 문도를 양성할 목적으로 지은 蘆谷의 紫巖書堂에서 판각되었다는 관점이 있으나, 이는 紫巖書堂의 건축 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잘못된 견해이다. 왜냐하면 『古鏡重磨方』 목판의 구체적인 판각처는 알 수 없으나, 간행 후 1970년대까지 蘆谷의 紫巖書堂에 보존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紫巖書堂은 盧相稷의

나이 60세 되던 1914년에 건축되었으므로, 이는 『古鏡重磨方』이 새겨진 뒤 10년 후의 일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古鏡重磨方』의 판각처는 밀양의 蘆谷 일대라는 사실 정도만 확인된다.

한편, 이 판본은 권말의 간기에 ‘甲辰夏 密陽蘆谷 重刊’이라 새겨져 있어서, 일부 소장 기관에 따라서는 판각 연도를 현종 10년(1844)으로 비정한 곳도 있다. 하지만 1840년 이후에 작성된 서책 목록이나 책판 목록상 密陽의 ‘重磨方’ 판에 대한 기록은 없고, 무엇보다 발문을 작성한 小訥 盧相稷(1855-1931)이 태어나기 이전의 시점이므로, 간기에서 밝힌 ‘甲辰’은 마땅히 1904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20세기 경남 지역의 대표적인 문인이었던 盧相稷은 密陽의 蘆谷으로 거주를 옮긴 뒤, 자신의 저술과 문중 및 儒學 문헌을 다수 간행하였던 이력이 조사되었다. 그는 蘆谷 지역에서 출판된 30여종의 문헌에 교정, 간행, 편집 등의 역할로 참여⁴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헌에는 『小學節要』, 『惺齋集』, 『下蘆先生文集』 등이 있고, 이 판본들은 한결같이 ‘甲辰秋蘆谷藏板’ 또는 ‘密陽蘆谷藏板’, ‘密陽蘆谷重刊’ 등의 간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권말에 첨부된 盧相稷의 跋文에 해당하는 ‘古鏡重磨方重刊後識’는 1934년 盧相稷의 후손 및 문인 70여명이 참여하여 간행한 『小訥先生文集』 권31에도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부기할 사실은 앞선 3종의 『古鏡重磨方』 판본이 중앙이나 관에서 주도한 관판본의 성격이 강한데 비하여, 이 판본은 盧相稷이 물자를 조달하고, 간행을 주도한 私家版의 성격이 짙다. 이는 전존본의 상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바, 판의 크기가 작고 10행 20자의 촘촘한 글자 배치, 鄭述의 識文이나 목차에서도 형식을 갖추지 않고 연이어 작은 글자로 한 판에 모두 새겨 버리는 등 전존본의 상태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41) 김철범, “小訥 盧相稷의 저술 및 문헌출간활동 방식,” 『동양한문학연구』 제27호(2008. 8), 197-199.

4.1.5 필사본

이상 4종의 간본 외에, 60여종에 달하는 『古鏡重磨方』 필사본이 각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사본들의 필사 시기는 대개 원본의 干支를 그대로 옮겨 적거나 또는 ‘普麟山 아래의 某某씨가 고종 2년(1865)에 서사하였다’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처럼 간본 못지않게 寫本이 많이 유통된 배경에는 책의 내용이 마음을 닦는 수양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 퇴계 선생의 선집이라는 점, 당시 선비들 사이에서 이 책을 필사하여 주고받는 점을 덕목으로 생각하였던 점, 본문의 수록 내용이 간결하고 분량이 단권으로 짧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4.2 판본 비교

이 장에서는 전존하는 4종의 판본 사이에 드러나는 본문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개별 판본의 검토에서 살펴보았듯이, 전존하는 4종의 판본은 行字數가 같거나 앞선 판을 번각한 경우는 없었다. 다만, 간행 시 앞선 판의 내용을 참고하였던 정황이나 板下本 서사 시 앞선 판을 보고 썼다는 기록이 확인될 뿐, 결과적으로 4종의 판본은 모두 판하본을 다시 쓰고, 본문의 체제를 달리하여 간행한 重刊의 형태로 전하게 되었다.

따라서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이와 같은 판본 간의 비교 작업은 重刊에 해당하는 각 異本의 차이를 식별하고, 그 정오를 가름할 수 있는 일차적인 과정이 된다. 그리고 실제 본문의 대조 작업 시 퇴계의 手寫本은 남아 있지 않으므로, 기준이 되는 판본은 선조 40년(1607) 초간본으로 삼았다. 물론, 초간본의 경우 인용문은 원전의 내용을 참고삼아 그 오류를 함께 검토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후속 판본의 본문 및 내용상의 차이를 조사해 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비교 작업 결과 드러나는 본문의 차이는, 다음의 <표 4>와 같이 정리된다.

<표 4> 전존하는 4종 異本の 본문 비교

(正文: ■)

初刊本 (1607)		寧邊府本 (1685)		校書館本 (1744)		蘆谷重刊本 (1904)		비고
위치	내용	위치	내용	위치	내용	위치	내용	
序-b-3	豈唯武公	序-a-5	豈惟武公	序-b-3	豈唯武公	序-b-1	豈惟武公	誤字
序-b-1	送林熙之	序-b-4	選林熙之	序-b-1	送林熙之	序-a-3	送林熙之	略字/ 通用字
1-a-6	殷監不遠	1-a-5	殷鑑不遠	1-a-6	殷監不遠	1-a-5	殷鑑不遠	類意字
2-a-2	必誠無行	1-b-8	必戒無行	2-a-4	必誠無行	1-b-8	必戒無行	類意字
4-a-8	用晦則	3-a-10	用晦則	4-b-1	用晦則	3-a-10	用晦則	誤字
4-b-9	有僊則	3-b-8	有仙則	5-a-2	有僊則	3-b-8	有仙則	類意字
5-b-2	綈布之溫	4-a-7	綈袍之溫	5-b-5	綈布之溫	4-a-7	綈袍之溫	類意字
6-b-6	趨時附勢	5-a-2	趨時附勢	6-b-8	趨時附勢	5-a-2	趨時附勢	同字
8-a-4	人默然	6-a-1	人嘿然	8-a-5	人默然	6-a-1	人嘿然	同字
8-a-4	其意已傳	6-a-1	其言已傳	8-a-6	其意已傳	6-a-1	其言已傳	誤字
8-a-5	人反以爲傾	6-a-2	人反以汝爲傾	8-a-7	人反以汝爲傾	6-a-2	人反以汝爲傾	脫字
10-a-8	忍棄女	7-b-1	忍棄汝	10-a-8	忍棄女	7-b-1	忍棄汝	誤字
10-a-8	不歎而盟	7-b-2	不歎血盟	10-b-1	不歎而盟	7-b-2	不歎血盟	誤字
10-b-2	前哲所同	7-b-4	前哲所得	10-b-3	前哲所同	7-b-4	前哲所得	誤字
11-a-7	物無迹	8-a-4	物無跡	11-a-8	物無迹	8-a-4	物無跡	類意字
12-b-5	違日悖德	9-a-3	違日悖德	12-b-7	違日悖德	9-a-3	違日悖德	글자도치
16-a-2	猶懼弗克	11-a-5	猶懼不克	16-a-2	猶懼弗克	11-a-5	猶懼不克	俗字/ 類義字
18-a-8	克承先志	12-b-7	克承先旨	18-a-7	克承先志	12-b-7	克承先旨	類義字
19-b-2	澄然一心	13-b-2	一心澄然	19-b-1	澄然一心	13-b-3	一心澄然	글자도치
22-a-6	晦菴	15-a-6	晦菴先生	22-a-2	晦菴	15-a-7	晦菴先生	글자추가
22-b-3	子鉤其深	15-b-1	子鉤其心	22-a-7	子鉤其深	15-b-2	子鉤其深	誤字
23-b-3	表裏交正	16-a-6	表裡交正	23-a-7	表裏交正	16-a-7	表裏交正	類意字
24-a-2	如百蟲蟄	16-b-1	如百虫蟄	23-b-5	如百蟲蟄	16-b-2	如百虫蟄	略字
25-b-2	南軒	17-b-2	南軒先生	25-a-5	南軒	17-b-3	南軒先生	글자추가
28-a-5	非禮勿徇	19-a-7	非禮勿循	27-b-6	非禮勿徇	19-a-8	非禮勿循	類義字
28-b-4	外止弗流	19-b-2	外止不流	28-a-5	外止弗流	19-b-3	外止不流	類意字
30-b-1	亦浩乎	20-b-7	亦浩浩	30-a-3	亦浩乎	20-b-8	亦浩浩	誤字
31-a-1	服膺弗失	21-a-4	服膺勿失	30-b-2	服膺弗失	21-a-5	服膺勿失	類意字
33-b-4	手足四支	22-b-9	四支	33-a-3	手足四支	32-b-10	四肢	脫字
40-b-9	張南軒	27-b-4	南軒先生	40-a-5	張南軒	27-b-5	南軒先生	異稱
42-b-5	惟二程子	28-b-7	惟一程子	42-a-2	惟二程子	28-b-8	惟二程子	誤字
43-b-7	表裏	29-b-1	表裡	43-a-3	表裏	29-b-2	表裏	類意字
43-b-8	動靜是資	29-b-2	動靜是咨	43-a-3	動靜選資	29-b-3	動靜是資	誤字
46-b-9	舟本何心	31-b-2	舟本無心	46-a-1	舟本何心	31-a-9	舟本無心	誤字

이상의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자수를 달리하여 판각한 본문 체제 상 특징은 물론, 행자수가 10행 20자로 동일한 寧邊府本과 蘆谷重刊本 또한 번각되지 않았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위의 표와 같이 개별 판본의 본문을 비교하면, 초간본을 위시한 각 판본에는 誤字와 脫字, 類意字나 통용되는 글자로 대체한 경우가 다소 발견된다. 그리고 글자를 추가하거나 글자와 단어가 도치된 사례, 正字의 俗字 또는 略字 표기 등 다양한 차이가 드러난다. 또한 초간본의 오류도 일부 확인되어, 선조 40년(1607) 初刊本의 경우도 인용 원전과 달리 새긴 경우도 찾아볼 수가 있다.

예컨대, 판본의 변이 양상 및 오류의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나타난다. 먼저, 본문의 제1장 『席四端銘』의 경우도 『全上古三代文』 등 原典에는 초간본과 같이 ‘殷監不遠’으로 새겨져 있으나, 寧邊府本과 蘆谷本에서는 유의자로 대체되기도 하였다.

또한 초간본의 본문 제2장 『金人銘』에서도 원전과 초간본 제2행에서는 ‘必戒無行’이었으나, 후대 판본에서는 ‘必誠無行’으로 類意字로 대체한 사례이다.

그 밖에 誤字의 사례 또한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이를테면, 寧邊府本 제3장 제10행의 ‘用晦’는 李至(947-1001)의 『續座右銘』 原文 및 나머지 세 판본에서 표기한 ‘用晦’가 올바른 표기이다. 그리고 초간본 제8장 앞면에 새긴 韓退之 즉 韓愈(768-824)의 『五箴』 중 『言箴』에서는 제5행에 ‘人默然而其意已傳’이라 새겨 두었다. 이 문구는 韓愈의 原典에서도 초간본과 동일하게 ‘침묵하여도 그 뜻이 전하여 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寧邊府本과 蘆谷重刊本의 표기는 문맥은 통하나, 초간본 및 원전과 다르게 새긴 誤字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초간본의 오류도 발견되는 바, 초간본 제8장의 『言箴』 제5행에서 ‘人反以爲傾’은 바로 앞 문장과 대응되는 구문으로 原典에서도 ‘사람들이 뒤집어 너를 위태롭게 한다’는 뜻으로 ‘人反以汝爲傾’으로 되어 있다. 韓愈의 原文 및 寧邊府本과 校書館本, 蘆谷重刊本이 모두 바르게 새겨진 반면, 초간본에서는 글자가 누락된 경우이다.

뿐만 아니라 초간본 제10장 眞西山의 『楮衾銘』을 새긴 단락에서는 ‘忍棄女

不敵而盟'이라는 구절이 있다. 이 또한 楮衾銘의 원문에 따르면, '차마 당신을 버리지 않고 피를 마시는 맹세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忍棄汝 不敵血盟'으로 되어 있다. 즉, 初刊本과 校書館本에서 글자를 잘못 판각한 사례로 간주된다.

이 밖에도 초간본 제10장 「楮衾銘」의 제4행 '務實前哲所同'이라는 문구를 들 수 있다. 이 문구는 眞西山의 原文 및 初刊本, 校書館本은 바르게 새겨진 반면, 寧邊府本과 蘆谷重刊本은 '前哲所得'으로 되어 있어서, 文意는 통하지만 原典 및 초간본과 다르게 새긴 誤字로 여겨진다.

또한 초간본 기준 제12장에는 張載(1020-1077)의 「西銘」을 새긴 단락이 있다. 이 단락의 제5행에는 '違曰悖德'이라는 문구가 있으나, 영변부분에서는 '違德曰悖'라는 구절로 글자가 도치되어 있다. 張載의 「西銘」을 수록한 原典과 초간본, 교서관본 및 蘆谷重刊本이 모두 바르게 새겨진 반면, 寧邊府本만 글자가 도치되어 있다.

결국 4종 판본의 본문을 비교한 표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선조 40년(1607) 安東都護府에서 새긴 것으로 추정되는 初刊本이 본문의 오류 및 인용된 원전과의 차이도 가장 적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문의 校勘을 진행하기 전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점이었으나, 초간본이 가장 正本에 가깝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드러난 본문의 다양한 문구 및 글자의 차이는 판하본을 서사할 당시 저본의 오류이거나, 판하본을 베껴 쓰는 과정 중 서사자의 실수로 인한 번개 또는 간행 시 각수의 실수로 글자를 잘못 판각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5. 맺음말

이상과 같은 검토를 통하여 『古鏡重磨方』의 편찬 경위와 본문 구성 등 판본의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관련 사료의 검토를 통하여 책의 간행 현황과 당대의 유통 및 활용 사례를 소급하여 고찰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존본의 서지적인 조사를 통하여 판본의 간행 경위 및 개별 판본의 특징을 살펴보고, 각 판본의

비교를 통하여 異本 간 드러나는 본문의 차이 및 그 정오를 가름해 보았다.

『古鏡重磨方』은 퇴계 선생(1501-1570)의 생존기인 16세기 중후반 선생이 직접 편찬한 심신의 수양서 또는 일상 생활의 箴言書적 성격이 강하다. 또한 퇴계 선생이 손수 選集한 탓에 선생을 따르던 제자 및 지역의 유생들은 물론, 安東府使 鄭述의 초간본 및 17세기 영변부 관판본은 왕실로 유입되어, 시장원의 세자 강독 등에 애용되기도 하였다. 나아가 18세기 중엽에는 영조의 王命으로 채자 교서관에서 간행되는 등 조선 시대 모두 4번의 간행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본문의 분량이 짧은 탓에 이를 정서한 필사본도 刊本 못지않게 많이 유통되기도 하였다.

한편, 현존하는 4종 판본의 기록 및 관련 사료의 조사를 통하여 개별 간본은 초간본의 간행 이후 모두 관하본을 다시 써서 새겨낸 重刊本 형태로 판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4종 異本의 본문 비교를 통하여 더 여실히 드러난 사항이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존본 4종 異本의 본문 비교 작업을 통해 初刊本 및 寧邊府 刊本, 校書館 刻本과 蘆谷 重刊本의 내용 오류 및 변경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판본에서 드러나는 본문의 변이 양상은 原典의 내용을 다르게 새긴 경우, 초간본 이후 후대 판본에서 빈출하는 類意字 또는 通用字로 글자 또는 단어를 대체한 경우, 글자를 누락시킨 사례, 글자나 구문의 도치된 사례, 原字의 略字나 俗字로 바뀌 새긴 사례 등 다양한 차이가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선조 40년(1607) 安東府 初刊本의 경우도 각 인용문의 원전과 비교하였을 때 글자의 脫字나 誤字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결국 이와 같은 판본에 대한 미시적인 검토 작업과 더불어 앞선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수행된 퇴계 찬술서에 대한 조사 작업을 범주면에서 찬술서 전반으로 확장시켜 나갈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는 퇴계 관련서 전반에 대한 윤곽을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각 판본에 대한 유통 및 간행 현황을 조사하는 기초적인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原典]

- 『慶州府校院書冊目錄』 (1907, 필사본, 서울대학교 규장각)
『書冊目錄』 (1888년 이후, 필사본, 한국학중앙연구원)
『嶺南各邑校院書冊錄』 (1907, 필사본, 서울대학교 규장각)
『寧邊誌』 (조선후기, 서울대학교 규장각)
『閔古館書目』 (1868년 이전, 필사본, 서울대학교 규장각)
『月川先生文集』 (1666, 목판본, 서울대학교 규장각)
『淸芬室書目』 (1968, 영인본)
『春坊藏書總目』 (1905, 필사본, 서울대학교 규장각)
『退溪先生年譜』 (간년미상, 목판본, 경북대학교 도서관)

[단행본]

-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편. 『퇴계학 연구논총 1-10』. 대구: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1997.
- 啓明漢文學硏究會 編. 『退溪學文獻全集』. 대구: 계명한문학회, 1991.
- 權五鳳 著. 『退溪家年表』. 서울: 퇴계학연구원, 1989.
- 權五鳳 著. 『李退溪의 實行儒學』. 대구: 學士院, 1996.
- 權五鳳 著. 『李退溪家書の總合的研究』. 京都: 中文出版社, 1994.
- 금장태 저. 『퇴계의 삶과 철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 金斗鐘.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求堂, 1980.
- 金澤庄三郎 編. 『朝鮮書籍目錄』. 서울: 成進文化社, 1976.
- 리철화. 『조선출판문화사』. 서울: 사회과학출판사, 1995.
- 모리스 꾸랑 著, 이희재 역. 『韓國書誌』. 서울: 一潮閣, 1994.
- 釋尾春苒 編. 『朝鮮古書目錄』. 京城: 朝鮮古書刊行會, 1911.
- 신귀현 지음. 『퇴계이황』. 서울: 예문서원, 2001.

- 尹炳泰 編. 『韓國書誌年表』.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2.
- 이황 著, 최중석 역주. 『이퇴계의 自省錄』. 서울: 국학자료원, 2003.
- 鄭亨愚, 尹炳泰 編. 『韓國의 冊板目錄』. 서울: 保景文化社, 1995.
- 前間恭作. 『古鮮冊譜』 第一冊-第三冊. 東京: 東洋文庫, 1944.
- 張伯偉 編. 『朝鮮時代書目叢刊』. 北京: 中華書局, 2004.
- 정석태 저. 『退溪先生年表月日條錄 1-4』. 서울: 퇴계학연구원, 2001-2006.
- 丁淳睦 著. 『퇴계의 교육철학』. 서울: 지식산업사, 1986.
- 鄭亨愚, 尹炳泰 編. 『韓國의 冊板目錄』. 서울: 保景文化社, 1995.
-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汎友社, 1990.
- 퇴계연구소 編. 『퇴계학맥의 지역적 전개』. 서울: 보고사, 2004.
- 퇴계 이황 編, 김성환 역. 『古鏡重磨方』. 전주: 전주대학교출판부, 1998.
- 퇴계 이황 編著, 박상주 역해. 『고경중마방』. 서울: 예문서원, 2004.
- 黒田亮 著. 『朝鮮舊書考』. 東京: 岩波書店, 1940.

[논문]

- 김성훈. “『古鏡重磨方』과 수양론 - ‘敬’을 강조한 箴·銘 작품을 중심으로.” 『승
실어문』 제23집(2009). 119-139.
- 김철범. “小訥 盧相稷의 저술 및 문헌출간활동 - 구한말 영남 지식인의 지식소통의
공간과 방식.” 『동양한문학연구』 제27호(2008. 8). 191-209.
- 신구현. “이퇴계의 『古鏡重磨方』이 지닌 수양론적 의의.” 『효정 채수한 박사 고회
기념 논문집』(1995. 11). 61-82.
- 옥영정.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族譜, 童蒙書, 地誌, 日記類 등 책판의 성격과 가
치.” 『大東文化研究』 제70집(2010. 6). 45-95.
- 유태일. “『小訥先生文集』 刊行攷.” 『師大學報』 제38집(1999. 12). 17-60.
- 윤병태. “退溪書誌의 研究.” 『韓國의 哲學』 제5호(1977. 5). 87-152.
- 윤병태. “퇴계의 저서와 그 간행: 주자서필요를 중심으로.” 『退溪學報』 제7호(1978).
83-155.

장동표, “퇴계선생과 『古鏡重磨方』,” 『시민교양강좌』 제3집(2005. 12), 113-129.
최채기, “퇴계 이황의 『朱子書節要』 편찬과 그 간행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3.

[참고 웹사이트]

『朝鮮王朝實錄』: <<http://www.koreaa2z.com/>>.
『承政院日記』: <<http://sjw.history.go.kr/>>.
『日省錄』: <http://e-kyujanggak.snu.ac.kr/sub_index.jsp?ID=ILS>.
『內閣日曆』: <http://e-kyujanggak.snu.ac.kr/sub_index.jsp?ID=NGK>.
『增補文獻備考』: <<http://www.krpia.co.kr/pcontent/>>.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http://www.ugyo.net/>>.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센터: <<http://www.kostma.net/>>.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http://www.nl.go.kr/korcis/>>.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janggak.snu.ac.kr/>>.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http://db.itkc.or.kr/itkcd/mainIndexIframe.jsp>>.

